

2019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기출문제(인문계열)

(가) 문학은 씹먹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학은 권력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며 부를 축적하게 하는 수단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씹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문학은 씹먹지 못하는 것을 씹먹고 있다. 서유럽의 한 위대한 지성이 탄식했듯이 우리는 문학을 함으로써 배고픈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며, 물론 출세하지도, 큰돈을 벌지도 못한다. 그러나 문학은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대체로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유용한 것이 결핍되었을 때의 그 답답함을 생각하기 바란다. 그러나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은 문학을 통하여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알게 된다. 문학은 그 부정적 힘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 한 편의 아름다운 시는 그것을 향유하는 자에게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 편의 침통한 시는 그것을 읽는 자에게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소위 ‘감동’이라는 말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심리적 반응이다.

감동이나 혼의 울림은 한 인간이 대상을 자기의 온몸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문학을 통해, 문학으로부터 얻은 감동을 통해, 자기와 다른 형태의 인간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확인하고 그것이 자기의 것일 수도 있다고 느끼게 된다.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지 않으므로, 그 원초적 느낌의 단계는 감각적 쾌락을 동반한다. (……)

무서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듣는다. 이처럼 문학은 억압 없는 쾌락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면서 문학을 읽는 자에게 반성을 강요하여, 인간을 억압하는 것에 맞서 싸울 것을 요구한다. ‘인간은 이런 수모와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것을 안 당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느끼게 한다. ‘인간은 이래야 행복하다, 그러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

문학은 동시에 불가능에 대항하는 싸움이다. 삶 자체의 조건에 쫓기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꿈꿀 수 있다. 인간만이 몽상 속에 잠길 수 있다. 몽상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몽상은 실재하는 삶이 얼마나 억압된 삶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문학은 그런 몽상의 소산이다.

문학은 실현될 수 없는 인간의 꿈과 현실과의 거리를 드러낸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꿈이 있을 때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거리를 취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반성할 수 있다. 꿈이 없을 때, 인간은 자신에 대해 거리를 가질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신에 갇혀 버려 욕망의 노예가 되어 버린다.

문학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학은 배고픈 거지를 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학은 그 배고픈 거지가 있다는 것을 추문으로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억누르는 억압의 정체를 뚜렷하게 보여 준다. 그것은 인간의 자기기만을 날카롭게 고발한다.

(나) 플라톤이 예술을 전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다. 그 또한 예술이 그가 의미하는 미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미의 이데아의 관조는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철학자에게 더 어울리는 일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예술의 으뜸가는 기능은 오히려 유용성, 그중에서도 도덕적 내지 교육적 유용성에 있었다. 즉 예술은 그가 의미하는 과거

지향적인 이상 국가를 형성하는 데 유용한 인물을 만드는 수단이어야만 했다. 용감한 병사가 위기에 직면해서, 혹은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힘이 될 수 있는 음악만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목적 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부상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나, 그밖에 고난을 견디어 내며 운명의 타격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악”이거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경우, 신에게 원하는 바가 실현되도록 빌거나 타인을 설득할 때, 혹은 타인의 청원이나 충고나 가르침을 받고 이성과 지혜에 따라 행동하고 오 만해지지 않으며, 절도와 진실성을 가지고 기꺼이 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악”만이 그의 계급주의적 이 상 국가에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다) 그 시골 귀족은 한가할 때마다(사실은 1년 내내 한가했지만) 기사 소설에 빠져든 나머지 나중에는 사 냥도, 심지어 재산 관리조차 제쳐 두었다. 기사 소설에 대한 호기심과 광기가 지나치다 못해 급기야는 광 활한 논밭을 팔기에 이르렀다. 덕분에 집 안 가득 기사 소설을 빼곡히 들여놓을 수 있었다. 물론 시골 귀 족은 그 책들 중 펠리시아노 데 실바가 쓴 책들만큼 훌륭한 건 없다고 생각했다. 명쾌한 문체와 논리가 아주 빼어났기 때문이었다. 특히 사랑의 속삭임과 연애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할 때는 그런 민 음이 더욱 확고해지곤 했다. “나의 이성을 만든 이성을 상실한 이성애 나의 이성은 힘을 잃고, 그대의 아 름다움을 한탄하니 이 또한 이성이노라.” 또는 “별들과 함께 신의 가호로 당신의 신성함으로부터 우리를 강하게 해 주고 당신의 위대함을 보여 주는 공적으로 인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높은 하늘을…….”이 라는 부분을 읽을 때도 그랬다.

이러한 이유로 그 가엾은 시골 귀족은 판단력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로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부활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들을 이해하고 의미를 되새기느라 밤을 지새곤 했다. 그는 돈벨리아니스가 상처를 입었거나 남에게 상처 입혔던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제아무리 훌륭한 명의들이 달려든다 하더라도 그의 얼굴이나 온몸에 생긴 흉터와 상처가 사라질 날이 올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앞으로도 모험은 계속되리라는 암시를 남기며 끝낸 “그리스의 벨리아니스 이야 기”의 작가를 칭찬하기도 했고, 더러는 펜을 잡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원저자의 약속대로 이야기의 결 말을 손수 써 내려가려고도 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더 중요한 생각들이 그를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아마 도 그 일을 실행에 옮겨 이루어 내고야 말았을 것이다. (……)

사실상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미치광이도 생각지 않았던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편력 기사가 되어 무기를 들고 말 등에 올라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 며,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 속 편력 기사의 모험들을 직접 실천에 옮겨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길이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가련한 양반은 자기의 무훈에 힘입어 적어도 트라피소나 왕국이 이미 자기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듯 즐거운 상상을 하다 보니 그 속에서 별난 욕심도 생겨났고, 그 결 과 자신이 원하는 걸 실천에 옮기겠다고 서두르기 시작했다.

1. 제시문 (가)에 나오는 ㉠“유용한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 하지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200점,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 제시문 (다)에 등장하는 시골 귀족의 행동을 사례로 들어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예술의 기능을 비판하고, 제 시문 (가)를 활용하여 소설로서 제시문 (다)가 갖는 문학적 가치를 설명하시오. (400점, 1,100~1,2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2019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기준표(인문계열)

출제 의도

2019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논술은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 성취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범교과적인 문항을 출제하였다.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된 독서 및 글쓰기 능력, 논리적·분석적 사고 능력, 창의적 사고력, 비판 능력 등을 토대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문항 1>은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유용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가)의 주장을 비판하는 문제이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제시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해 능력이 필요하며, 제시문의 주장을 하나의 논증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문항 2>는 문학과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묻는 문제이다. <문항 2>는 제시문 (나)의 플라톤의 예술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시문 (다)에 등장하는 시골 귀족의 사례를 들어 플라톤의 예술관을 비판하고, 제시문 (가)에서 주장하는 문학관을 들어 소설로서 (다)가 갖는 가치를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해력과 서로 다른 유형의 제시문들을 주어진 문제와 관련지어 재구성하고 그 안에서 비판의 논거를 찾아낼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장 구성력 및 표현력 등이 필요하다.

위에 열거한 능력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면 충분히 갖추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대학교 수시논술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고교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II	김현	비상교육	2014	82~85	제시문 (가)	재구성 없음
생활과 윤리	김문환	교학사	2014	238~239	제시문 (나)	재구성 없음
문학	세르반테스	비상교육	2014	289~291	제시문 (다)	재구성 없음

2019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채점기준표(인문계열)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이해력	70	200	600
	분석 및 논증적 사고력	70		
	표현력	30		
	정서법	30		
	분량 미 준수	-10 ~ -30		
2번 대문항	이해력 1	70	400	
	비판적 사고력 1	70		
	이해력 2	70		
	비판적 사고력 2	70		
	표현력	80		
	정서법	40		
	분량 미 준수	-20 ~ -80		

2019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답안 예시(인문계열)

1. 제시문 (가)에 나오는 ㉠“유용한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200점, 400~5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유용한 것”이란 ‘권력이나 부를 얻는 수단’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학은 권력이나 부를 얻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제시문 (가)는 문학은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유용하지 않으므로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시문 (가)는 유용성을 지나치게 협소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문학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확인하거나 감각적 쾌락을 통해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도 역시 제시문 (가)에서 말하듯이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억압한다. 문학을 읽음으로써 느끼는 쾌락과 감동을 통해 우리는 억압하는 것과 억압당하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부정적 힘을 인식하게 되며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된다. 그런 점에서 문학은 분명히 우리에게 또 다른 억압이 된다. (454자)

2. 제시문 (다)에 등장하는 시골 귀족의 행동을 사례로 들어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예술의 기능을 비판하고,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소설로서 제시문 (다)가 갖는 문학적 가치를 설명하시오. (400점, 1,100~1,200자, 제시된 분량 미 준수 시 감점 처리됨)

문학과 예술은 인간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억압된 삶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사상이나 가치를 주입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술의 도구화는 예술의 본질을 왜곡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오해와 광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제시문 (나)의 플라톤은 예술의 으뜸가는 기능이 미의 관조가 아닌 유용성, 그 중에서도 도덕적 내지 교육적 유용성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는 예술이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은 감동을 통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서 사회 구성원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곤 했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예술을 도구화 하는 것은 이성과 지혜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대신, 오히려 편협하고 경직된 사고를 하며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양성하게 된다. 제시문 (다)에 등장하는 시골 귀족의 사례는 예술의 도구화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기사 소설에 심취한 시골 귀족은 판단력과 이성을 잃고, 소설 속 편력 기사가 되어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제시문 (가)는 문학이 그것을 읽는 자에게 쾌락을 주면서 인간에 대한 총체적 파악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그 꿈으로 인해 인간은 자신을 억압하는 것의 정체를 인식하고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한다. 소설로서 제시문 (다)는 소설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소설 속 기사도의 길을 좇아 나서는 시골 귀족의 이야기를 통해 비록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거나 유용해 보이지 않는 몽상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임을 일깨워 준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은 자신의 꿈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기만적인 삶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문학과 예술을 통해 쾌락과 감동을 느끼고 다양한 인간의 삶과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며 때로는 세상의 변화를 꿈꾸기도 한다. 인간과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문학과 예술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1,139자)